

2020 새 설계

유진섭 정읍시장

“시민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행복정읍’ 열겠다”



“시민 행복시대 정읍 번영시대”를 실현하는 해로 만들어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유진섭 정읍시장은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넘쳐나는 새해를 시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자 한다”면서 “올해도 낙낙하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읍의 소중한 자원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으며 많은 희망을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시장은 “올해 국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606억원을 확보해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함께하며 성원해 준 시민과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한 공직자들에게 마음으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2020년에는 이러한 희망과 기회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데 시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개의 연못이 맞닿아 서로 물을 대어주며 서로 마르지도 넘치지도 않는다”는 사자성어 ‘이택상주(鰲澤相注)’를 언급하며 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더욱 윤택하고 행복하게 성장 발전하는 정읍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정읍을 사람중심의 건강한 녹색 환경

국비 5606억원 확보 역대 최대 일자리 창출 등 숙원사업 탄력 사람중심 녹색환경도시 조성

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와 전기자동차보급, 미세먼지 저감정책,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와 빗물이용시설 지원,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사업, 도심순환형 둘레길, 생활권 도시숲 조성을 통해 건강한 도시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정을 계속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헬륨 암 치료기 기술 개발,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단계별 창업생태계 조성,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포용적 복지로 따뜻한 정읍을 만들는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운영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치매안심센터와 공공실버주택이 준공되면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

인 노인종합돌봄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환경,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아양산 유아숲체험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3월 개장에정인 문화광장 어드벤처 복합문화시설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사계절 매력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200만 관광객 시대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2019-2020년 정읍 방문의 해’와 향기 나는 도시 만들기를 핵심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와 내장산자연휴양림,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 문화관광과 융합한 개발사업을 아우르는 내장산 토탈랜드 조성에 박차를 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읍의 매력을 각인시키고 정읍에서 자고 머물면서 소비하고 가는 체류형 관광객을 정읍으로 유치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편의 중심의 미래를 여는 도시공간 구축도 올해 주요 목표다.

정읍천변 벚꽃로에서 영화이파트를 연결하는 다리가 7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분수와 조경, 경관조명뿐 아니라 인도교에 무대를 설치해 다양한 문화공연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

2020년 주요 사업은

- ▲사람중심의 건강한 녹색 환경도시
- ▲지역산업의 혁신성장 및 좋은 일자리 창출
- ▲포용적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안전망 구축
- ▲사계절 매력있는 문화도시 조성 200만 관광객 시대 달성
- ▲살고 싶은 농촌 돌아오고 싶은 농촌 건설
-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편의 중심의 미래 도시공간 구축

획이며 서부산업도로의 연속성 확보,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물류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문화복합센터, 신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 트레이닝센터, 통합가족센터 등 생활 SOC 사업에 속도를 더해 시민의 행복도도를 대폭 상승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끝으로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 행복 시대, 정읍 번영시대가 될 수 있도록 16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혼신을 다해 뛰겠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여성·어린이 ‘맞춤형 정책’ 추진

안전 귀갓길 조성 위해 안전피난처 20곳에 안심비상벨 설치

여학생 보호 휴대용 호신경보기 등 안전지킴 액세서리 보급

익산시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여성과 어린이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전개한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특색을 살려 여성들을 위한 안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달부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 지역 곳곳에 안전피난처 안심비상벨을 설치해 운영한다.

안전피난처는 편의점 18곳과 음식점 2곳(24시간 영업) 등 20곳이 지정됐으며 외부 현판과 함께 여성이 위급상황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홍보등이 설치됐다.

안심비상벨은 여성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피난처에 대피 후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다.

시는 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호신경보기 등의 안전지킴 액세서리를 보급

하고 불법촬영장비 합동단속과 장비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서 지역 8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 신호위반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한 곳 44곳, 신호등 설치 필요한 곳 12곳을 선정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예산에 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2억5000만원 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수치로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도시 익산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은 물론 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힘쓰겠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 소식재배 이앙기 개조비 70% 지원

순창군이 올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식재배 이앙기(샤진) 개조사업으로 20대를 지원한다.

사업비 21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앙기 개조비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순창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식재배이앙법을 실천하려는 순창군 농업인, 3년 이내 이앙기, 영농규모가 큰 농업인 등으로 오는 17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설태송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식재배이앙기 개조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농촌인력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 증대의 효과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기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군산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 범시민 현수운동

군산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위해 범시민 현수운동을 확대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송용 장미 특화거리 조성 등 6개 사업에 20개 업체와 시민이 참여해 5억7000만원 상당의 사계절미 등 9150그루를 심는 등 현수운동의 기틀을 다졌다.

올해는 현수 참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소를 다양화하고, 식재 기반을 조성해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월명터널 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지에 현수 숲을 조성하고, 롯데마트에서 월명로 사거리 화단에 장미 특화 거리를 연장 심을 계획이다.

또 청양산 수변로 3600㎡에는 군산분재연구회와 군산꽃사랑연구회 주관으로 야생화 동산을 조성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참여자가 현수부터 식재까지 부담할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조정 가치가 있는 수목을 기증할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현수목 이식 비용 5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기성 기자 nogusu@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대폭 확대

고창군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복지증진을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7월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는 지난해 예산 4억7000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11억2700만원을 확보했다.

인원은 현재 420여명에서 1600여명까지 늘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애초 보훈처의 보훈 급여금의 수령 여

부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 시 배우자로 범위가 확대된다.

보국수훈자와 특수임무 유공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고창군은 2012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호국보훈수당으로 월 5만원씩을 지급했고 2017년에는 월 6만원으로 높였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